

# 안목있는 남자라면 가시덤불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백장 선사께서 결제대중들에게 일렀습니다.  
 “목구멍과 입술을 달고서 빨리 한마디 하거라.”  
 그때 위선영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장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말해 주기를 꺼리는 것은 아니나, 뒷날 우리 법승들을 다 죽일까봐 걱정된다.”  
 그러자 오봉상관(五峰常觀)이 말했습니다.  
 “선사께서도 입을 다무십시오.”  
 백장 선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대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때 운암담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겠으니 화상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백장 선사가 다시 “목구멍과 입술을 달고서 빨리 한마디 하라”고 하니  
 운암이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계십니까?”  
 백장 선사가 말하셨습니다.  
 “우리 법승들은 다 죽었구나.”



이 결제법문을 산승도 설함 없이 설했고 따라서 결제대중은 들음 없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종사가 남자를 지도하는 것은 못하고 왜기를 뽑아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안목이 없으면 못하고 왜기를 뽑아주고 있는데도 못하고 왜기를 뽑아주는 것조차 모르고서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면서 또 다른 못하고 왜기를 뽑아주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문 선사는 이렇게 대갈일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평지에서 죽은 놈들이 수도 없다. 가시덤불을 지나갈 수 있는 놈이라야 제대로 된 놈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눈가죽이 제대로 풀려있는 남자가 가시덤불이라는 격외(格外)의 연구 속에서 그 낙처(落處)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판한(擔板漢) 즉 외골수들은 말이라는 가시덤불에 걸려서 제대로 살아남지를 못

합니다. 안목이 있는 남자라면 칼을 두 손으로 움켜진 채 휘두름을 당하더라도 칼끝도 상하지 않게 하고 자기 손도 다치지 않는 법입니다. 가시덤불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 가느다란 실오라기에 걸려서도 그것조차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저 누에고치처럼 가는 실에 뒤엉키게 되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살에 달라붙고 뼈에 달라붙어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마을을 만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자니 주막도 없는 것처럼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결제대중은 그 답을 참으로 알고자 합니까? 말하기 이전에 이미 있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동안거 한철 동안 입술과 목구멍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된 언어이전의 그 본래 마음자리를 목숨 걸고 참으로 간절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담 스님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 허공에 눈길 두면 알음알이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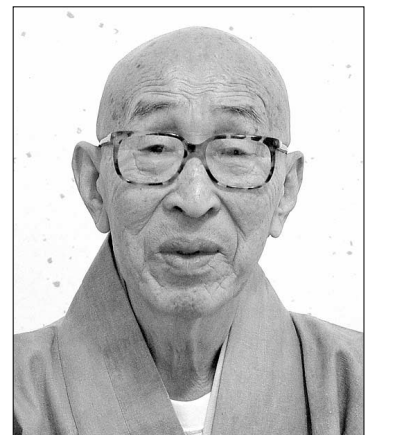
법은 가고 옴이 없고 움직이고 바뀐다. 온갖 법이 다 한 곳에 또렷또렷한 형상이 있을 것이요, 온갖 법이 날 때에 비고비어 항상 적적하니라.  
 주장일타(杖一打) (중략)  
 오늘이 자리의 대중들은 일러보라, 남자(衲子)의 생사(生死)와, 저 허공이 생(生)하고 멸(滅)함이 어떠한가!  
 양구(良久) 하신 후 남자(衲子)의 생사(生死)는 그렇거니와, 허공은 제 자리를 어의지 않고 항상 조용하나 찾으려면 끝끝내 볼 수 없는데, 어찌 허공에 눈을 붙이게 하는가!

허공에다 눈길을 돌리면 지견(知見)과 알음알이를 일으키니라.  
 대중들이여! 옛도 없고 지금도 없는 묘한 본체는, 청정하고 공적(空寂)해서 온 세계가 모두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몸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사라쌍수 아래서 특별히 두발을 보이셨고, 달마조사는 웅이산 마루에 외딴산만 남기신 것이 이것이니라. 이로써 반 토막의 뼈는 모두 흩어져도, 묘한 본체는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알겠는가!  
 주장일타(杖一打)(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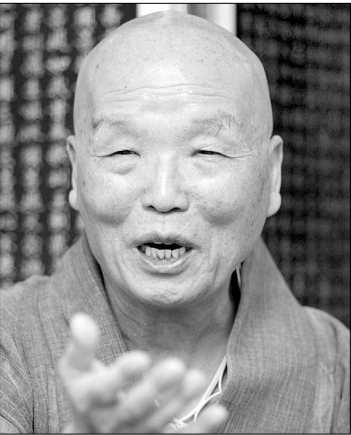
## 道 떨칠 이 그대니 최상승 관문 뚫어라

이 몸의 얻은 불법 알고 싶다면 법신이 있는 곳 따로 없나니 만물이 제자리에 놓여져 있고 그 모두가 우리 집 재물이로다 도를 떨쳐 빛낼 이 오직 그대이니 최상승의 관문을 바로 뚫으라 간파하라 간파하라 나는 누군가 전삼삼 후삼삼이로다  
 <벽암록(碧巖錄)>에 이르기를, 무착(無着)이 오대산에 갔을 때 일이다. 길을 잃어 곤경에 빠졌는데 마침 짙은 눈에 띄어 거기서 잤다. 이 짙은 문수보살이 신봉력으로 만들어 낸 것이었으나, 무착은 알 턱이 없었다.

이튿날 문수보살이 들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남방에서 옵니다.”  
 “그대 그 곳 불법은 어떻게 됩니까?”  
 “말법비구들이라 계율을 잘 안 지킵니다.”  
 “스님의 수효는 얼마나 되는가요?”  
 “절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이밖에 무착이 묻는다.  
 “이곳의 불교는 어떤가요?”  
 “법성(凡聖)이 동거하고 용사(龍蛇)가 뒤섞여져요.”  
 “수효는 얼마나 되나요?”  
 “전삼삼(前三三) 후삼삼(後三三).”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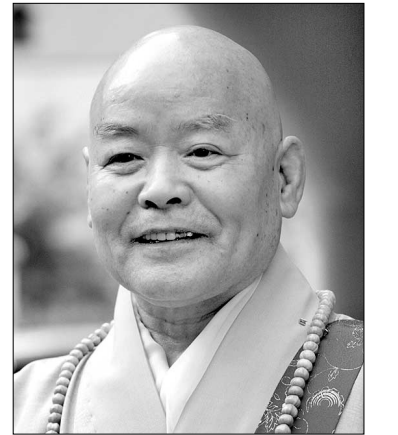
## 내년에도 새 가지 돌아 바람에 흔들리리라

(상략)  
 가을바람은 시절을 보내고 찬 서리 빛이 새 계절을 맞이하니, 옛 부처의 면목이 때를 따라 나타나고 조사의 가풍이 간 곳마다 언제나 새롭다.  
 뜰 앞의 몇 그루 황국은 천하의 만주를 누설하고, 고개 위의 계수나무 차가운 그림자에 등근달의 가백이 가득하다.  
 운문 선사에게 어느 스님이 물기를 “나무가 마르고 잎이 다 떨어진 때는 어떠한가” 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본체가 가을바

람에 드러난다” 하였다.  
 대중들이여! 곁어갈 때에 앞뒤로 팔을 흔드는 것은 무방하지만,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만 못한 것이니라. 만약 눈앞에 잎새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간 곳마다 바람 없는 데 물결을 일으킬 것이요, 홀연히 찬 기러기 울음 한마디라도 들게 된다면 모두가 감감한 귀신 굴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알겠는가.  
 내년에도 새 가지가 다시 돌아와 봄바람에 쉬지 않고 흔들리리라.

## 수행자는 요요적적 이치 터득해야 합니다

(상략) 시비(是非)와 흑백(黑白)을 논하고 자타를 구분하여 사물에 집착하는 분별심을 내는 것이 중생이요, 눈앞에 펼쳐지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이 환영임을 깨달아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무애자재한 성품을 기르는 것이 이것이 참부처의 경지입니다.(중략)  
 수행자는 의단(疑團)을 타파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는 요요적적(寥寥寂寂)의 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략)  
 춘하추동 온냉한서(春夏秋冬 溫冷寒暑)가 그대로 진리요. 생로병사 회오리락(生老病死)이 본래의 면목입니다.  
 (중략)  
 태고총림은 떨리는 개산조 도선국사가 계시고, 가까이에는 침공·경운·선곡 같은 대선지식이 계서서 해동의 선풍을 드날린 자랑스러운 육조의 고사입니다.  
 구자무불성, 정전백수자, 목마상금제(狗子無佛性, 庭前柏樹子, 木馬上金梯) 등의 화두는 깨달은 이의 경계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도장에서 이번 결제기간 동안 역대조사스님의 번득이는 선지와 화두를 참구하여 일대사인연을 통찰하는 본분 작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하략)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태고총림 방장)

각 총림 을유년 동안거 결제법어(요약)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 제5회 소년소녀가장돕기 한마음선원 불교 합창제

### 공심 공체 돌아닌 노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 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회향하고자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부디 한마음으로 한자리하시어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 후 원 : 광주불교사임연합회 · 광주불교방송 · 불교신문사 · 법보신문사 · 현대불교신문사

- 시간 : 2005년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 장소 :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상무지구 KBS 건너편)



△ 지구환경문제를 주제로한 어린이 합창단 음악극 ‘반디의 여행’이 공연됩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 062)373-8801~3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